

기준으로 한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무시하고, 쉽게 생각해도 되는 존재일지 모른다. 실패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.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. 한 사람이고, 잠깐 만나는 사람도 그 한 사람의 가능성과 미래를 보면서 살아간다. 세상을 살려야 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? 성경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도 세상을 바꾸고, 시대를 살렸다. 그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은 램네프라고 한다. 그 속에 일곱 램네프가 있다. 요셉 한 사람, 모세 한 사람, 다윗 한 사람이었다. 그 속에 본문의 바울 한 사람이 있다 **왜 한 사람일까? 그들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었다. 유일한 사람이었고, 절대적인 사람이었다. 왜 일까?**

**,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 속에 있었다.** 모자르고, 실패하는데,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필요했다.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다(사43:4, 롬5:8, 요일4:10). 다른 사랑에 속지 말고, 이 절대 사랑 붙잡고 살아가라. **둘째,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방법 속에 있었다.** 세상의 미련한 자, 지혜없는 자,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다(고전1:26-29). 늘 스스로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하다가 무너진다. 아담도 그렇게 사단에게 무너졌다(창3:5) 바벨탑의 저주가 그렇게 시작되었다(창11:4). 정말로 내가 그 분야에서 부끄러운 자요, 무능한 자요,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시작하신다. **셋째,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 속에 있었다.**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. 그래야 나도 살고, 세상을 살리고, 치유하고, 축복하며 살 수 있다. 그것이 전도자의 삶이다.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보다 지혜롭고 강하다. 다윗이 이 사실을 정말 믿고 고백하면서 골리앗 앞에 섰다(삼상17:47) 하나님이 셀 수 없는 미디안 족속의 군대를 기드온의 300용사로 이기게 하신 이유도 그것이다(삿7:1-7)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, 절대 방법, 절대 능력 속에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겠다는 것이다. 그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다. 하나님이 남겨 놓으신 유일한 사람, 절대적인 사람이다. 우리가 그 속에 있다.

1. 내가 하나님이 남겨 놓으신 그 한 사람이라는 언약을 붙잡고, 믿음 회복하라. 내가 절대 제자로 서는 것이다.
  - 1)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다. 성경은 계속 말씀을 통해 확인해주시는데 내가 놓치고 산다. 내가 부족하고,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어도 상관없다. 그것이 상처로 남아 또 넘어져도 상관없다. 속지 마라.
    - ① **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원 전에 예정하시고, 선택하셨다는 것이다(엡1:3-5).** 나를 만들고, 모태에서 지어냈다고 했다(사44:2).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알고 계셨다.
      - ② **내 힘으로 날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분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(사43:1).** 본문의 바울처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던 자도 그 분이 찾아오신 것이다. 워낙 사단에게 붙잡혀 악하게 살아서 받을 고난이 많을지라도 그것도 다 증거가 되게 하셔야 한다(16절).
    - 2) **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다.** “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”고 했다(15절)
      - ① **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각인시키라(롬10:17).** 각인된대로 생각하고, 그 생각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.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 받았다(롬8:1-2). 나도 해방되고, 남도 해방시켜주라.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권세를 받았다(요일3:8). 지금까지 내 인생과 가문과 세상 속에서 역사하던 사단의 권세와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것이다(약4:7, 벰전5:8-9). 이 권세로 흑암에 묶인 자들을 살려내야 한다.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길을 찾은 자다(요14:6). 내 인생 전부 속에 그 분이 함께 한 것이다. 이 길을 말해주라.
        - ② **그리스도를 목상하면서 뿌리를 내리라. 뿌리를 내린 만큼 강해지고, 열매가 나온다. 쓴 뿌리가 바뀌어야 한다.** 조금만 말씀 목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, 절대 방법, 절대 능력을 체험하라. “목상”이라는 말은 다시 생각해보고, 내게 적용해보는 것이다(수1:8, 시1:2-3). 특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, 절대 방법, 절대 능력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라(골2:6-7)
      - ③ **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면서 체질을 바꾸라. 결국 체질대로 산다. 오래된 것이다.** 나도 모르는 불신앙 체질(염려, 걱정), 세상 체질(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욕심), 율법 체질(늘 판단하고 정죄), 열심 체질도 무섭다. 나의 열심이고, 나의 공적이고, 나의 자랑이 된다. 그러다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무너진다 이 체질이 쉽게 안 바뀐다. 자신과 싸우고(고전15:31), 세상과 싸우고(요일2:15-16), 사단과 싸우라(눅10:19)
  2. 나를 통해서 세워져야 할 한 사람의 언약을 붙잡고, 집중해보라. 나를 통해 절대 제자가 세워진다.
    - 1) 하나님이 핍박자 바울을 어떻게 쓰시는가?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뀐 것이다. 모든 이방인을 살리는 첫 선교사, 시대적 전도자,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인물이 된다.
      - ① **바울이 그 많은 도시 중에 왜 하필이면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찍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까?** 중요한 이유가 있다. 이 다메섹에 이 핍박자 바울을 받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, 아나니아가 있었다. 뭘 하고 있었냐? 기도하고 있었다.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순종할 준비를 하고, 힘을 얻고 있던 사람이다. 다메섹에서 또다른 마가 다락방을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다. 이것을 이전 캠프라고 한다.
        - ② **바울의 첫 사역의 시작이 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을까?** 그 안디옥 교회에 핍박자요 실패자인 바울을 이해하고,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바나바와 성도들이 있었다.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중요한 사람을 붙이시는 것이 아니다. 내가 먼저 준비되기를 원하신다.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된다. 알고 보면 모두가 창3장의 희생자들이다.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냈고(요19:30), 다 하실 수 있고(롬8:28), 모든 것을 증거로 쓰시겠다는 것이다(행1:8).
      - 2) **한 사람의 절대 제자가 세워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단어 세가지가 있다.**
        - ① **소수다. 많은 사람과는 집중이 어렵다. 그래서 주님도 12명의 소수를 제자로 택하여 집중하셨다(막3:13-19)**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. 작은 일, 작은 자, 소수를 천으로 생각하고 하라(사60:22)
        - ② **지속이다. 예수님이 제자들 택해놓고 수많은 실패를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속한 것이다(요13:1).** 내가 누군가를 3년만 지속해서 집중하면 분명히 한 사람의 인생에 치유와 변화가 일어난다. 그가 제자가 된다.
        - ③ **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라.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 버리면 실패한다.** 다 도와주고도 그리스도가 남게 해야 한다. 핵심은 말씀을 따라가고,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(요6:68)

**결론-**나 한 사람이 방법이고, 결론이다. 이 언약을 붙잡고, 하나님이 준비한 나 같은 한 사람 살리기를 축복한다.